매일묵상
2022. 8월호

발 행 인 I 차 동 혁
집필/편집 I 교역자실
진 행 I 신앙운동팀
고 척 교 회 I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매일묵상 I 2022 08

고척교회

매일 묵상

2022.08

Photo | 이성도 집사(섬김-남성)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2022년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8월
그라티아 갤러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영 작가

개인전 2회, 초대전 및 그룹전 다수 전시
한국미술협회, 서울여성작가협회, 인천미술협회 회원

요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게가 느껴지는 삶 속에서 작은 소망을 그려봅니다. 전쟁과 경제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 힘든 때에 어른들의 욕심으로 생긴 이 고단한 삶은 아이들에게 짐으로 남게 되었지만, 작은 소녀의 기도를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톤 다운된 컬러로 지금 상황을 표현했고 배경색을 통해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 8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이미영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 름	
소 속 (교구-목장/부서)	

2022년 표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신16:11, 막1:15, 행2:47)

2022 매일묵상 8월

사도행전 8-28장, 예레미야 1-31장

목차

기도를 배우다 03

8·9월 달력 04

8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매일묵상, '위드유'가정예배 20, 36, 50, 64

예레미야 해설 32

교회소식 72

예배안내 73

부록

-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I 이미영 작가의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GOCHEOK PRESBYTERIAN CHURCH

기도를 배우다

마음과 생각을 높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말씀으로써 항상 저희를 깨우치시고 많은 본보기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견고해 보이는 것도 당신의 입김 한 번이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들어 올려 희망의 닻을 그곳에 두게 하소서. 마침내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로써 저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의 모든 생각이 하늘에 있게 하소서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360.

장 칼뱅
(Jean Calvin)
(1509-1564 프랑스의 신학자, 종교개혁자)

종교 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였다. 칼뱅주의를 개창함으로써 마르틴 루터·울리히 츠빙글리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8

2022

훈련의 달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 105:1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 청년공동체 여름 수련회	6 • 청년공동체 여름 수련회
7 • 청년공동체 여름 수련회 • 입추	8	9	10	11	12	13
14	15 • 광복절 • 말복	16	17	18	19	20
21 •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예배	22	23 • 처서	24	25	26	27
28	29	30	31 • L-12 하반기 개강			

TO DO LIST

☐ ☐
☐ ☐
☐ ☐
☐ ☐
☐ ☐

9

2022

성숙의 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엡 4:1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2	3 • 가을 일체심방 시작
4 • 가을 부흥사경회 • 어와나 2학기 개강	5 • 가을 부흥사경회	6 • 가을 부흥사경회	7 • M-12 하반기 개강	8 • 백로	9	10 • 추석
11	12 • 대체공휴일	13	14	15	16	17 • 마더와이즈 지혜5기(8주) 개강 • 희망의 복지재단 직원 워크숍
18	19	20	21	22	23 • 추분	24
25	26	27	28	29 • 은빛시니어 2학기 개강	30	

TO DO LIST

☐ ☐
☐ ☐
☐ ☐
☐ ☐
☐ ☐

8월 [오늘의 말씀]

1일	사도행전 8-9장	16일	예레미야 5-6장
2일	사도행전 10-11장	17일	예레미야 7-8장
3일	사도행전 12-13장	18일	예레미야 9-10장
4일	사도행전 14-15장	19일	예레미야 11-12장
5일	사도행전 16-17장	20일	예레미야 13-14장
6일	사도행전 18-19장	21일	주일
7일	주일	22일	예레미야 15-16장
8일	사도행전 20-21장	23일	예레미야 17-18장
9일	사도행전 22-23장	24일	예레미야 19-20장
10일	사도행전 24-25장	25일	예레미야 21-22장
11일	사도행전 26장	26일	예레미야 23-24장
12일	사도행전 27-28장	27일	예레미야 25-26장
13일	예레미야 1-2장	28일	주일
14일	주일	29일	예레미야 27-28장
15일	예레미야 3-4장	30일	예레미야 29-30장
		31일	예레미야 31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다윗과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ww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월
8월
01

오히려 복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0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9장

오늘의 말씀 I 행 8-9장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강력한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9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하게 여길 뿐 아니라 교회를 크게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로 회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행 8:4-8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박해가 가해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아서고 억누른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을 가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땅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해와 순교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모든 땅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최근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 상황을 마주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원하지 않았던 박해 상황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찬양으로 나아간 가브리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3.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이 순간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화

8월

02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10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11장

오늘의 말씀 I 행 10-11장

10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이 둘은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들은 할례자들이 비난하자, 그것을 해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I 행 10:25-26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이나, 그냥 유대인이나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의 공동체에 고넬료 백부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들을 특정할만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청년공동체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실로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청년 모두의 삶에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소서.

수
8월
03

주의 사자의 두 얼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02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2-13장

오늘의 말씀 I 행 12-13장

12장에서는 헤롯왕에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둡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주의 사자를 통해 베드로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왕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렇게 사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묵상할 본문 I 행 12:7-10,20-23

헤롯왕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야고보를 본보기 삼아 죽여 버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였고, 베드로 역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주의 사자는 베드로의 쇠사슬을 벗기고 파수와 쇠문을 지나게 해서 그를 탈출시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왕에게는 벌을 내립니다. 헤롯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경우는 옥에서도 구출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왕의 경우는 사람의 영광 속에서도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은 두 얼굴을 당신에게 보여주게 되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주님의 사자는 오늘 본문에서 왜 두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주의 사자의 얼굴을 보고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 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주일 2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의 기쁨이 날마다 찬양팀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소서.
3.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의 사자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목

8월

04

선교일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8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4-15장

오늘의 말씀 I 행 14-15장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을 시작으로 전도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자,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회의가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관례 때문에 생긴 논쟁을 회의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4가지 사항을 피해야 하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행 15:36-41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본인들을 떠난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이 갈등과 다툼은 단순한 인간적인 갈등과 고집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낳은 갈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경험한 회심 사건으로 이방 선교에 대해 아주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방 선교를 위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 다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작은 갈등들이 서로를 어렵게 할 수 있기에 그들은 갈라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선교일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오직 단 한 가지 일에 몰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봅시다.

* 바울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같은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모아 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2. 주일 3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이 합당한 경배 되게 하셔서, 찬양팀과 회중 모두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3. 세계열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하소서.

금
8월
05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99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6-17장

오늘의 말씀 I 행 16-17장

16장에서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디모데도 합류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웁니다. 바울은 귀신들린 여종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서 그들은 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신을 자책하며 죽으려고 하던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17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뢰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행 17:10-15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복음 선포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 복음을 잘 믿고 바울과 실라를 잘 따랐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이끌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베뢰아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은 진리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베뢰아 사람들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왜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대하게 되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2. 주일 오후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양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찬양팀 되게 하소서.
3.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토

8월

06

말씀의 능력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00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8-19장

오늘의 말씀 I 행 18-19장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더욱 하나님의 도가 굳건해 집니다.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으로 아데미 신상모형을 만드는 데메드리오가 위협을 느껴 소동을 일으킵니다.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이 천해질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꽤나 큰 소동이 일어나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던 상황이라서 서기장에 의해 소동이 마무리 됩니다.

묵상할 본문 I 행 19:11-20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호기심 있게 보며, 탐하던 유대인 마술사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세하려고 합니다. 귀신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따라하다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악귀에 의해서 옷도 벗겨지고 몸도 상하여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유대인과 헬라인이 두려워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도 스스로 불태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술적으로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이 인생에서 보았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삶 살게 하소서.
2. 수요오전 찬양팀에게 날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3. 세계 열방에 흩어져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소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찬 양 찬송가 91장

말 씀 마가복음 7장 1-23절

나누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며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쁜 행실을 따지지만 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욕구와 선택과 행동의 동기가 어그러졌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12:2)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행동이 변화될 수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새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 문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 도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종이에 마음을 상징하는 빨간색 하트를 그려보세요. 하트 중앙에는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지 가족과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주세요.

암송구절 **마가복음 7장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8월 7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8월
08

복음을 위하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44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21장

오늘의 말씀 I 행 20-21장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바울의 여행 경로에 대해 20장에서 간단히 기록해 나가다가 두 가지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들으며 졸다가 떨어져 죽은 뒤 다시 살아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작별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마지막 사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 때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어떤 자세로 목회에 임했으며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행 20:17-35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설교를 합니다. 고별설교라고 하지만 예배중 강단에서 설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것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비굴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바르게 복음을 전할 때 '시험'이 찾아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 사도바울이 그의 앞에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복음을 위하여 사도바울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2. 수요오후찬양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3.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화

8월

09

복음의 수종 드는 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5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2-23장

오늘의 말씀 I 사도행전 22-23장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오해로 인해 체포를 당하는 위급한 상황을 겪은 바울은 히브리말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가 히브리어를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조용히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변론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성전에서의 환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론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선포하자, 그의 말을 듣던 청중들은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사도행전 22:22-30

스데반은 유대인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 순교했지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역을 명령하셨으며 바울 자신은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그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고난받은 기록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복음의 수종 드는 자였던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 중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 전도사역에 자신의 일생을 쏟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 사도였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체포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어떠한 변론을 했습니까?

* 사도바울은 위험을 알고도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위험과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에도 묵묵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2. 금요성령집회팀이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며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3.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인도하소서.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도우소서.

수
8월
10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61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4-25장

오늘의 말씀 I 사도행전 24-25장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당하기 직전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 구출되었고 가이사랴로 압송되었습니다. 루시아의 편지와 함께 바울을 넘겨받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예비심문을 마친 뒤에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사실을 심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도바울이 벨리스 앞에 선 때는 그의 통치 말기인 주후 57년이었고 벨릭스 총독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져서 유대 지도부의 주장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벨릭스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지 않으려 했고, 유대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벨릭스를 압박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사도행전 24:10-26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진행된 바울의 재판이 휴정으로 들어간 지 며칠 후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대했습니다. 벨릭스 부부는 바울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은 특별히 바울이 총독 부부를 위해 선택한 주제였고 그들의 불의와 무절제한 삶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전도자로서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기회를 자신의 무죄나 석방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담대히 권면하는 기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아그립바, 버니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바울은 위정자들 앞에서 주어진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복음전하는 사명을 위한 바울의 열정과 의지를 묵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시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행복사역부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행복사역부의 모든 사역들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3.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대한민국과 세계열방을 위해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목

8월

11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4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오늘의 말씀 I 사도행전 26장

바울은 아그립바 왕을 향해 정중한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을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그립바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셨다는(22-23절) 사실을 증언한 것을 볼 때 복음 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사도행전 26:1-32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립바 등에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을 복음을 증언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베스도는 이러한 바울의 설교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모임을 마련한 것은 바울을 심문하기 위함이었고 자신보다 유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립바 왕을 통해 바울을 죄인으로 황제에게 호송할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재판하기 위한 자리가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설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유없이 잡혔고, 고통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바울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 왔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회인 총독과 왕에게, 그리고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본문 속에서 베스도가 황급히 바울의 말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바울의 고통과 위기는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위기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신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사도바울의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위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회로 바꾸어 주소서.
2. 희망의복지재단 산하시설과 기관, 사역팀의 직원과 봉사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소서.
3.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돌리는 일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소서.

금
8월
12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6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28장

오늘의 말씀 I 사도행전 27-28장

사도행전 27-28장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여정과,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후의 활동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28장 31절의 마지막 증언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름 없는 시골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 한 민족의 수도에 불과한 예루살렘을 넘어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우리는 말씀의 확장과 복음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사도행전 28:1-31

마침내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이 죽음과 가까웠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위험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작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현재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판은 비판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다 버리고 떠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맡겨 주신 내 앞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사도행전 28:31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승리'에 대하여 묵상해 봅시다.

* 하나님 나라의 생존과 확장을 위해 한평생을 달려갔던 사도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든 담대함으로 막힘없이' 나아가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들고 모든 담대함으로 막힘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2. 사회봉사센터의 모든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나날이 더하게 하소서.
3. 세계 선교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소서.

1. 들어가는 말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과 애굽에 내려간 배신자에 대한 예언도 하면서 자신도 애굽에 끌려갔던 비운의 예언자, 유일하게 개인적 일기가 남아 있는 예언자, 역사의 수난을 누구보다 몸소 겪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예레미야와 그의 책에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 어떤 예언자보다 그의 삶과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그가 섬겼던 하나님 나라의 용광로와 같은 역사와 관련하여 서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역사적 상황

예언자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상황은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주전 610-609년은 앗수르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해였으며 동시에 유다가 그렇게 고대하던 개혁의 지도자 요시야 왕이 죽은 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상황이었으며 앗수르 대신에 모든 것을 장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득세한 때(주전 605)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앗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부상을 지켜봤으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의 복합적인 세력 구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 소명을 받았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며, 이 곳은 솔로몬 왕 때 축출당한 아비아달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 힐기야였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는 제사장적 용어가 풍부하게 담겨있으며 그의 신학도 제사장 신학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 불릴 정도로 불행한 시기에 예언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언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멍에를 메고 오지병을 깨뜨리는 등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했지만 백성들은 외면했고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예언활동을 계속했습니다.

4. 내용과 종합적인 개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유다는 고대 중동의 복합적인 국제 정세 속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국제 정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한 이면에는 앗수르의 몰락이 있었고, 북방 민족들들의 출현이 있었으며, 이집트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변화했던 것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국내의 상황 또한 중요했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 제사장 가문 출신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강조했던 친 바벨론 정책은 조국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며, 동시에 창의적인 신학에 기반을 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활동의 범위는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까지 확대되었으며 본의는 아니었지만 이집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문제 많고 위기에 처한 사회 속에서 예언자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토

8월

13

예레미야의 소명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02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2장

오늘의 말씀 I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와 그와 관련된 두 가지 환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하나님을 반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행음'에 대한 지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행위를 '행음'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할 본문 I 예레미야 1:1-19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명을 짊어질 젊은 예레미야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다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병사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예언에 대하여 반발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과 같이, 쇠기둥과 놋성벽과 같이 만드셔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려운 만큼 그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예레미야를 감싸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되더라도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자처하고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는 젊고 경험이 부족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임명하시고 비록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 소외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후에 정말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의 온갖 잘못된 성역에 대항하며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지 묵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해 조롱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2. L-12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 리더, 헬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3. 국내외 선교지를 축복하사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풍성한 말씀과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두려움을 넘어서

찬 양 찬송가 391장

말 씀 신명기 1장 19-33절

나누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의 경계선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 망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또 가나안 땅의 백성은 장대하며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이 살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라며 용기를 줍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질 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 도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먼저 가시고 행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족과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이후 서로를 향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라고 서로 격려해주세요.

암송구절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8월 14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8월
15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87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오늘의 말씀 I 렘 3-4

3장에서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고 물으시며 유다가 음란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음행한 이스라엘을 따라서 유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백성들이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쪽에서부터 유다에게 재앙이 내려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으로 인해 탄식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3:1-5

하나님이 온유하게 설득하실 때는 돌아가지 않겠다던 유다가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자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유다 백성들을 다른 남편과 결혼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그 여인이 본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하물며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하고, 온 땅을 더럽혀 놓았으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음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치고 거룩한 땅이 벌거숭이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자신만의 편리한 생각을 갖고 악을 행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용해 죄악 가운데 나의 욕심만을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룬 욕심은 이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 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먼저 떠올리며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살게 하소서.
2. M-12가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3.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화
8월
16

재앙과 큰 파멸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7장
* 오늘의 말씀: 렘 5-6장

오늘의 말씀 I 렘 5-6

5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심히 반역하여 버리실 것이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장차 재앙과 큰 파멸이 북쪽에서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소유는 타인에게 넘어가고 남녀노소가 다 잡혀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 평안을 말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6:1-15

하나님은 북방에서 크고 강한 군대를 불러 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마치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따듯이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끌어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읍으로 평안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전쟁에 대한 경고를 듣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등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폐허로,황무지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은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며,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크게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해 유다가 망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죄 가운데 있더라고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남선교회 연합회 가운데 함께 하사 모이기에 힘쓰며 힘을 합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연합회가 되게 하소서.
3.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수
8월
17

여호와의 목소리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1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7-8장

오늘의 말씀 I 렘 7-8

7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정의를 행하면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짓을 믿는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거짓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혜롭다 하지만 결국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평강을 말하나 거짓이어서 평강이 없고 가증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입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7:1-28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더 완악해져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가질 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이 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르짖어 간구할지라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한번이라도 새겨듣고 회개 하며 돌이키기만 했어도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따를 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여전도회연합회와 함께 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교회 안에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목

8월

18

만군의 여호와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2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9-10장

오늘의 말씀 I 렘 9-10

9장에서 하나님은 이웃을 속이고 악을 저지른 백성을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로 인해 시온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회복을 주지 못하는 은금과 장식한 나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10:1-16

우상은 사람이 나무를 베어 조각한 후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입혀 만든 것으로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줄 수 없는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살아 있는 나무가 베이는 순간 그 안에 생명이 없기에 구원하는 능력도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사람들은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신들로 숭배 했으며 이것이 참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고, 삶에 필요한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무 조각이나 돌로 만든 이방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 계신분이며 생명과 권능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세상의 헛된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감사위원회와 함께 하사 바르고 정직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소서.
3. 교육부서에 세우신 교사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여름 사역 이후에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더욱 섬기며 힘쓰게 하소서.

금
8월
19

여호와의 분노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0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1-12장

오늘의 말씀 I 렘 11-12

11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백성들은 악한 마음과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재앙을 선언합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고 유다 백성을 이방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것은 고난과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12:7-13

유다의 멸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유다가 제 아무리 번성하고 용맹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열방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들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유다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를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자 유다는 순식간에 파괴하는 자들로 인해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땅에는 더 이상 평안이 존재하지 않고 농사를 해도 더 이상 좋은 수확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힘과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형통도 우리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삶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유다 백성들이 받은 징벌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으로 머무르며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2. 노회와 총회 가운데 함께 하사 교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 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3. 파송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힘 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토

8월

20

주를 앙망하옵나니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5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3-14장

오늘의 말씀 I 렘 13-14

13장에서 하나님은 썩은 베 띠를 보여주시며 유다가 쓸모 없는 베띠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임박한 재앙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온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4장에서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심판에도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을 고발하며 이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14:1-18

극심한 가뭄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뭄은 신분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기에 유다 전역에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초목이 말라버리고, 물과 풀을 찾지 못한 들짐승들도 새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큰 재앙 앞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징벌이 피부에 와 닿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버리지 마시길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 예레미야는 죄를 대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 뿐 아니라 이를 들은 백성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길 바라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유다 백성들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

*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 하였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희망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2.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우상과 불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찬 양 찬송가 15장

말 씀 에베소서 1장 3-14절

나누기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케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질 문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 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가족과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유튜브에서 "감사 – 지선" 찬양을 찾아 함께 불러보세요.

암송구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8월 21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8월
22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6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5-16장

오늘의 말씀 I 렘 15-16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새와 짐승으로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울어줄 자도 없을 것이며, 과부가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고, 자녀가 많은 과부도 자녀를 잃고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동족에게 받는 박해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적들에 의해 죽거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더욱 깊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심령이 외로움과 상처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시며 그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 것과,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 것, 잔칫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 곧 애곡할 자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유다에 기뻐하는 소리가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16:10-21

유다에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되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신 땅에서 쫓아내어 이방 땅에서 억지로 우상을 섬기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자녀나 교회 지체를 향한 사랑과 돌봄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래 참았으나 지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나의 신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들을 내려놓길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

1. 내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소서.
2. 대한민국 사회에 성별, 지역, 빈부, 정치성향간 갈등들이 이제는 그치고 보다 나은 성숙의 길,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늦여름 무더위에도 외부에서 일하는 농부와 현장 근로자들, 냉방시설이 열악한 저소득층들에게 적절한 돌봄과 지원이 있게 하시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국가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정부당국에 지혜를 주소서.

화

8월

23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72장
* 오늘의 말씀: 렘 17-18장

오늘의 말씀 I 렘 17-18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는 그 백성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에 그들에게 준 기업에서 그들의 손을 떼게 하시고, 먼 타국에서 원수를 섬기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권력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만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키고 예루살렘이 사람이 평안히 거하는 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리라고 심판을 선포한 민족일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리라 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리라고 말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17:12-18, 18:18-23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찬송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조롱하고 위협해도 도망가지 않고 맡기신 목자로서의 직분에 충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날에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수치와 치욕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꾀를 내어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과 행악자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이렇듯 병들고 핍박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길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무엇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나에게 죄되고 죽은 행실을 일으키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루어 주시길 기도합시다.

* 나는 주님께 어떤 토기입니까? 깨끗하고 쓰실만한 토기인지 흠있는 모습은 없는지 토기장이 비유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 내가 현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

1.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소서.
2.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공산정권의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정사와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통일도 바르게 준비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며 상처 입은 땅이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소서.

화
8월
24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84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9-20장

오늘의 말씀 I 렘 19-20

19장에서 예레미야는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을 데리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곳에서 이방신에게 분향하며 자녀들을 불사르기까지 했으므로 그 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계획을 무효가 되게 하시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레미야는 가져 온 옹기를 함께 온 자들 앞에서 깨뜨립니다. 이 깨어진 그릇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도 완전하게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몰렉의 신의 본거지인 도벳이 망한 것처럼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에서 제사장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는 그를 때린 후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두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골밋사빕이라고 바꾸십니다. 바스훌의 가족과 그의 예언을 들은 친구들이 모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에 칼에 죽게 될 것이고, 바스훌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20:7-13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설교할 때 전하다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사정을 하나님께 절규하며 아룁니다. 예레미야는 설교를 할 때마다 비웃음과 조롱하는 소리만 들으니 견딜 수 없어 다시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라는 표현처럼 예레미야의 다짐보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 더 강하였고, 그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어 다시 나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친한 벗까지도 그가 실족하기를 바라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예례미아의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유다는 이방나라(애굽)를 의지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막고자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내 앞날에 대한 계획들을 생각해 봅시다. 내 계획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 나는 현재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소서.
2. 담임목사님 말씀 사역할 때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목양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3.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영혼 구령의 열정과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 시국에도 지역교회마다 복음전파의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목

8월

25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9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1-22장

오늘의 말씀 I 렘 21-22

21장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죽게 되고, 남은 자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죽은 자(요시야 왕)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여호아하스)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후 죽어서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로 모은 재산으로 화려하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유다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여호야김은 죽어서 예루살렘 문밖에 나귀처럼 내던져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의지하며 사랑하던 이방 동맹국들이 모두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유다의 왕들)에게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수치와 멸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행하던 죄의 습관들 때문입니다. 고니야(여호야긴)는 깨어져 버려진 항아리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을 것이며, 그의 자손 중에 다시는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을 것입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21:8-10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이 성읍(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죽을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 비참하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시켜 주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가 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내 잘못된 삶을 깨우쳐 알게 하시도록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손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나는 현재 생명의 길에 서 있습니까? CCM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을 유트브에 검색해서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패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아(21장)와 여러 왕들(22장)이 왕으로서 공평한 판결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을 따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리더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현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서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교구사역자와 부서사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 선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서게 하소서.
3.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우울함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실천하게 하소서.

금
8월
26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치리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16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3-24장

오늘의 말씀 I 렘 23-24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무리를 돌보지 않고 몰아내 흩어 버린 목자(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을 벌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모아 그들을 기를 목자들에게 맡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악행을 다 들추어 내시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십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실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으로 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23:30-32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짓 예언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이 받은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마치 자기가 보고 받은 것처럼 말하고, 거짓으로 꿈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속이며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2)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 3)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리와 임무를 부여받은 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며 거짓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 4) 하나님의 전권대사로도 된 것처럼 과장하면서 심지어 성경말씀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만희 신천지집단, 장길자 어머니하나님 집단과 같은 이단 사이비집단과 소위 축복장사꾼들로 언급되는 물질로 인해 타락한 목회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이단교주와 타락한 목회자들의 불의를 주님께서 다 들추어 내시고 참된 부흥과 갱신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주변에 이단사이비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바르게 대처하도록 합시다.

* 주변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목회자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길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

1.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사익을 채우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소서.
2. 은퇴항존직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건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3. 이 땅에 이단들(이만희집단, 장길자집단)과 사이비종교, 우상들을 척결하여 주시고, 퇴폐와 향락의 문화는 사라지고 건강하고 바른 문화가 퍼지게 하소서.

토

8월

27

여호와께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5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5-26장

오늘의 말씀 I 렘 25-26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에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고발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과 이 성 사람들에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 값을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관들과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하자 몇몇 장로들이 히스기야 왕 때 미가의 예언에 모두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일과, 최근에는 선지자 우리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그를 죽였었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러자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를 풀어줍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25:30-38

온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호령소리가 온 세상 만민에게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큰 바람이 온 민족에게 일어납니다. 모두에게 임하므로 그 때는 애곡하는 이도 매장하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기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되는 전쟁의 참혹함보다 더 큰 두려움임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봅시다.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전도대상자중 우선순위로 세 분만 적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하여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길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

1. 내게 주신 가족과 전도대상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시무항존직들이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마다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3. 40일후 입주하는 고척아이파크(구 영등포교도소자리) 입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고척교회에서 한가족되어 신앙생활을 함께할 분들을 예비하여 주소서.

우리를 향한 마음

찬 양 찬송가 270장

말 씀 시편 117편 1-2절

나누기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차별 없이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롬3:22).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고 조건을 갖췄고 받을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길 오늘도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리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 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기 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인자와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가족과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모른다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해보세요.

암송구절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8월 28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8월
29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10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7-28장

오늘의 말씀 I 렘 27-28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과 들짐승까지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전에 남아 있는 기구들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지만 오히려 그는 거짓 예언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해 일곱째 달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28:1-11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리에 또 다른 예언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상반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닌 들어야 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비록 심판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때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거짓된 메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2. 늘 수고하고 애쓰는 사무실 직원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3.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거짓과 미혹의 영에 현혹되지 않도록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화
8월
30

포로생활이 아닌 기도생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64장
* 오늘의 말씀: 렘 29-30장

오늘의 말씀 I 렘 29-30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바벨론에서 머물러 살면서 집을 짓고 정착할 것과 또한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회복은 당시 거짓 예언자들의 말처럼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차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29:1-14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하는 성읍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단시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야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 중에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악에 묶인 포로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생활을 원하고 계십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도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생활이 아닌 기도생활을 하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죄의 사슬에 묶여 어둠의 영에 끌려 사는 포로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생활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2. 영아부에 속한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수
8월
31

새 언약, 새로운 삶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83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오늘의 말씀 I 렘 3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포로생활에서 돌이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할 것이며 그들의 심령은 물 댄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번창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은 옛적에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으로 돌판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따를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시 무너지거나 허물어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묵상할 본문 I 렘 31:31-40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긴 옛 언약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을 새겨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한번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가 다시 언약의 관계를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유아부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유아부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게 하소서.
3.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소식

8월

교회

-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예배 | 21일(주일)
- L-12 개장 | 31일(수)

교회학교

- 청년공동체 여름 수련회 | 5-7일(금-주일)

예배시간 안내

GOCHEOK.PRESBYTERIAN.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6:00	은혜대예배당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 말씀을 읽고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 1장 5절)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명기 1장 30절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마가복음 7장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